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이 명 희[†] · 홍 선 옥*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한양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The Image Evaluation of Clothing Color of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Myoung-Hee Lee[†] · Sun-Ok Ho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2004. 9. 24. 접수; 10. 28. 채택)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how image evaluation and preference of women's clothing color vary according to perceiver's culture, gender, and clothing colo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image evaluation according to body type and the clothing color; and to disclose what image affects to the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Korean and American. Subjects were 388 Korean and 363 American college men and women.

The American evaluated the wearer more elegant, feminine, and neater than the Korean did. Clothing color gave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all image variables. Koreans showed that red and blue color shirts were perceived to be individualistic. Koreans considered blue, indigo, purple, gray, and black were perceived to be less feminine. This means that they evaluated the colors of blue range and low chroma were masculine according to their traditional attitude. Women were more attracted by indigo and purple, while men tended to evaluate yellow as an appealing color. The evaluation of sociability varied depending on the perceiver's culture and clothing colors. The corpulent body type had negative evaluation rather than the ordinary one without the relation with the color of clothing for Koreans and Americans. The evaluation of sociability of Americans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the body type and clothing color.

Attractiveness gave the first significant influences on clothing color preference, and the next came individual(-) and splendid image for Korean men. The individual image gave Korean men to be negative effect. Attractiveness, elegance, and sociable image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clothing color preference in Korean women. For American men, elegance gave the first significant influences on clothing color preference, and the next came sociability and neatness, while elegance was the first and the next came sociability and attractiveness for American women.

Key Words: perceiver's culture(지각자의 문화), image evaluation(이미지 평가), clothing color(의복색)
body type(체형), American(미국인)

※ “이 논문은 200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현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색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의복의 색은 성별, 지위, 성격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을 볼 때 의복의 색을 가장 먼저 지각하여 색에 의해 분위기를 느끼며,¹⁾ 파랑색과 분홍색 옷으로 어린이의 성이 뚜렷이 구별된다. 또한 색채에 따라 정열적인 이미지, 침착한 이미지, 개방적인 이미지 등이 표현될 수 있다. 색의 상징성은 형과 관련되어 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²⁾ 그 상징적 효과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 지역,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중국인과 미국인의 결혼식 신부의 의복 색을 통한 평가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³⁾ 의복은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각 문화별로 다양한 특성을 전달해주며,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의복이미지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복의 인상이나 이미지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지각자의 특성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⁴⁾ 지각자의 성격,⁵⁾ 의복관심,⁶⁾ 유행관여⁷⁾ 등과 관련된 연구가 더러 이루어져왔다.

한편 최근에는 국가간의 의류제품 교역이 증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제품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타문화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된 환경 속에서 문화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에 대하여 차별성과 공통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에 따른 의복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와 선호의 차이를 규명하며, 문화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복색 이미지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지각대상자를 보통체형과 비만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무역교류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므로 한국과 미국 남녀대학생의 비교문화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의류학 연구와 의류산업 분야에서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자의 문화(한국인과 미국인), 성별,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지각대상자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복색 이미지 평가

색은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므로 생리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며, 색의 연상이 일반화 될 경우 색은 특별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색채가 자극하는 감정적 효과에는 온도감, 중량감, 흥분, 침착성 등이 있는데,⁸⁾ 난색은 자극적이며, 한색과 저명도의 색은 침착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복의 색채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로서, 착용자의 이미지를 지각할 때 의미있는 영향을 주며, 적합한 색채의 의복은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빨강색 스트 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상을 주며, 파랑색 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 노랑색은 깔끔하고 밝은 인상, 검정색 착용자는 깔끔하지 못하고 어두운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⁹⁾ 또 원피스 색에 관한 연구에서 노랑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보라색은 매력적인 이미지, 초록색은 수수한 이미지로 나타났다.¹⁰⁾ 일반적인 의복색에서 녹색은 젊음과 발랄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¹¹⁾ 직물의 경우 파랑은 가볍고 시원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¹²⁾

한복의 색에 대한 연구에서 회색은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빨강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¹³⁾ 테일러드 재킷의 연구에서도 흰색, 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은 능력

† Corresponding author ; Myoung-Hee Lee
Tel. +82-2-920-7198, Fax. +82-2-922-7308
E-mail : mhlee@sungshin.ac.kr

이 낮게 지각되었고, 빨강 재킷은 능력있게 지각되었으며,¹⁴⁾ 검색 수트는 딱딱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⁵⁾ 의복색과 의복유형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베이지색 상하의는 수트가 캐주얼한 복장보다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빨강과 베이지색 배색은 캐주얼한 복장이 수트보다 더 매력있게 지각되었다.¹⁶⁾

2. 의복의 비교문화연구

오늘날 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의류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브랜드 광고 및 제품홍보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국적을 초월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요구와 취향을 파악하는 비교문화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선재¹⁷⁾는 미국인과 미국에 있는 교포 대학생의 의복태도가 한국인과 차이를 보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의복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미국 대학생과 교포 대학생들은 의복이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거나 동성이나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상형성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었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지위상징이나 신분과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미국인 보다 더 높았다. 또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Lee와 Burns¹⁸⁾의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은 미국 여대생보다 상표명을 중요시하였으나, 미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보다 의복의 유행, 디자인, 바느질, 옷감 등의 외관 및 실용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정옥¹⁹⁾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선호하는 의류상표의 폭이 다양하였고, 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였다.

이명희²⁰⁾는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여성복 이미지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고 한국 여성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미국 여성은 유행에 앞선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은 여성복에서 특히 여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DeLong, Koh, Nelson과 Ingroldstad²¹⁾은 진 의류의 의미 지각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미국 대학생은

진이 '편하게 함'을 나타내며, 연령에 관계없이 입는 옷이라고 지각한 반면, 한국대학생은 '젊음/학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진을 착용했을 때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하여 한국 여자대학생은 젊음, 유니섹스,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미지 추구가 높았으나, 미국 여자대학생은 성숙한, 섹시한, 레져, 전통적인 이미지에 대한 추구가 높았다. 박수경²²⁾의 연구에서 청바지에 대한 친숙도는 미국인이 더 높았으며, 추구이미지는 개성과 활동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활동적인 이미지에 대한 추구가 더 높았다.

박우미²³⁾는 한미여대생의 의복 선호도를 비교하였는데 한국 여성은 미국 여성에 비해 상하 동일색을 좋아하며 미국 여성은 액세서리의 효과를 선호하고 가슴이나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복행동은 추구이미지, 의복평가기준, 디자인 선호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의복이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문화와 성별, 착용자의 의복 색과 체형을 연구변인으로 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으로서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며,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2×8(지각자의 문화×성별×의복색), 2×8(지각대상자의 체형×의복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4개 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요인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는 피험자간 설계이므로 1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 피험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집단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개의 독립변인을 2종류로 분류하여 2가지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티셔츠와 바지를 착용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티셔츠의 색을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은 타원형 윤곽의 얼굴로서 표준체형에 가까운 20대 여대생 1명을 선정하였으며, 짧은 소매가 달린 둥근 목둘레의 티셔츠와 베이시색 긴 면바지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방법은 여성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찍은 후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복 색을 바꾸었다. 의복색의 평가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에 대한 영향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자극물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자극물의 인물은 신체유형을 다르게 하여 보통체형과 비만체형의 2가지를 사용하였다. 셔츠의 색은 착용가능성과 색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빨강, 노랑, 파랑, 진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의 8가지 색을 택하였다.

의복 색이 결정된 모델의 모습에 대해 연회색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만들고, 이를 다시 비만형의 체형이 되도록 수평방향으로 25% 확대한 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완성된 그림은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10×8cm의 크기로 출력하였으며, 체형(2)과 의복색(8)으로 변화를 준 총 16 종류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2) 측정도구의 문항 선정

이미지 지각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²⁴⁾를 참조하여 택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7개 변인으로 된 16개의 이미지 평가 항목과 1개의 선호도 항목이었다. 7개 변인은 품위, 단정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사교성, 화려함이었다. 품위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지성적인-비지성적인이 포함되었고, 단정성에는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개성에는 개성적인-평범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이 포함되었다. 여성성에는 여성적인-남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매력성에는 매력적인-매력적이지 아닌, 세련된-촌스러운이 포함되었다. 사교성에는 사교적-비사교적, 적극적-소극적, 화려함에는 화려한-수수한, 값비싼-값싼이 포함되었다. 7개 변인의 품위, 단정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사교성, 화려함의 Conbach's α 신뢰도는 .56, .63, .62, .60, .70, .75, .50이었다.

질문지는 의복착용자인 자극물과 함께 이미지

평가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남녀 대학생 388명과 미국 Illinois주의 Urbana-Champaign에 거주하는 백인 남녀 대학생 36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의 피험자가 1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으므로 16종류의 자극물 각각에 대하여 10~13명의 남녀 피험자가 반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Conbach's α 신뢰도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Duncan의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지각자의 문화, 성별,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지각자의 문화(한국인과 미국인), 성별,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주효과를 보면 사교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문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지각대상자의 품위, 단정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화려함, 선호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 단정성, 개성, 사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는 남자보다 지각대상자의 단정성과 사교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개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의복색에 따라 모든 변인의 이미지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1〉 문화, 성별,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의 차이

변량원		df	품위 F	단정성 F	개성 F	여성성 F	매력성 F	사교성 F	화려함 F	선호 F
문화(A)		1	61.92**	8.77**	13.25**	116.63**	107.12**	2.24	10.11**	40.43**
성별(B)		1	.00	21.83**	8.91**	2.60	.59	4.31*	2.77	.76
의복색(C)		7	6.54**	4.90**	22.00**	23.24**	2.49*	11.39**	6.68**	3.44**
A×B		1	.51	1.30	.11	.62	.31	.01	1.41	.24
A×C		7	.90	1.39	7.20**	6.82**	.78	4.76**	2.17*	1.58
B×C		7	.85	.87	3.48**	1.12	2.08*	.74	.76	1.72
A×B×C		7	.69	1.15	1.20	1.48	.92	.63	.17	.73
변인	속성	N	M	M	M	M	M	M	M	M
문화	한국인	388	3.17	4.65	3.15	3.50	3.01	4.04	2.62	3.20
	미국인	363	3.75	4.87	3.51	4.20	3.89	4.16	2.88	3.94
성별	남	374	3.45	4.58	3.46	3.78	3.40	4.00	2.82	3.52
	여	377	3.44	4.93	3.18	3.89	3.47	4.19	2.68	3.60
의복색	빨강	92	3.24cd	4.67ab	3.63b	3.81b	3.50ab	4.43b	2.91b	3.49b
	노랑	95	3.52bc	4.30c	4.56a	4.24a	3.61a	4.87a	3.30a	3.64ab
	파랑	95	3.07d	4.54bc	3.41bc	2.97d	3.19b	3.93c	2.56bcd	3.29b
	남색	95	3.23cd	4.94a	2.64e	2.61d	3.19b	3.89c	2.31d	3.28b
	보라	94	3.52bc	4.76ab	3.52bc	3.11c	3.51ab	3.93c	2.73bc	3.37b
	흰색	96	3.64ab	4.99a	2.92de	4.20ab	3.55ab	4.42b	2.81bc	4.03a
	회색	91	3.45bc	4.86ab	2.67e	3.18cd	3.23b	3.48d	2.47cd	3.40b
	검정	93	3.87a	4.98a	3.19cd	3.20d	3.68a	3.81cd	2.90b	3.98a

* p<.05 ** p<.01 a, b, c, d, e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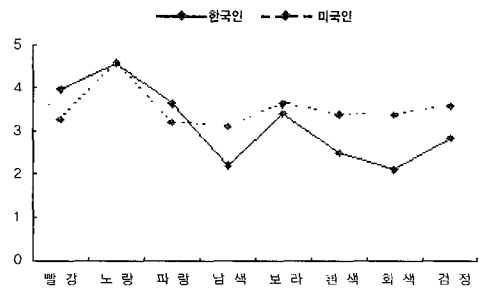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이미지 평가는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중 문화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문화와 의복색, 성별과 의복색은 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볼 때 품위 차원에서는 검정과 흰색 셔츠가 품위가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파랑, 남색, 빨강은 품위가 낮게 지각되었다. 즉 빨강, 파랑과 같은 선명한 유채색보다 흰색, 검정과 무채색이 품위가 더 높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단정성은 흰색, 검정, 남색이 높았고 노랑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흰색과 검정은 품위있고 단정하게 보이는 셔츠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은 노랑색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남색, 회색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개성 평가는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그 형태는 <표2> <그림1>과 같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빨강과 파랑 셔츠를 더 개성이 높다고 평가하였

고, 남색, 흰색, 회색, 검정색은 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서 흰색은 개성적인 색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개성 평가는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3> <그림2>와 같다.



〈그림1〉 개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2〉 개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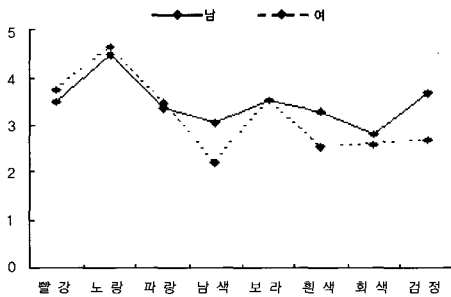
문화 \ 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한국인	3.96	4.55	3.63	2.21	3.41	2.49	2.09	2.82
미국인	3.26	4.57	3.18	3.09	3.63	3.38	3.35	3.58

<표3> 개성 평가의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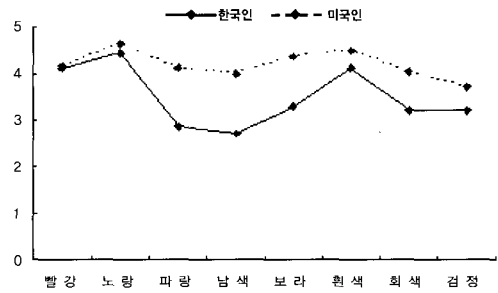
성별\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남자	3.50	4.48	3.34	3.04	3.52	3.28	2.80	3.65
여자	3.74	4.64	3.48	2.21	3.51	2.54	2.59	2.68

<표4> 여성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문화\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한국인	4.11	4.44	2.87	2.71	3.28	4.11	3.22	3.21
미국인	4.18	4.65	4.13	4.00	4.36	4.51	4.04	3.71



<그림2> 개성 평가의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3> 여성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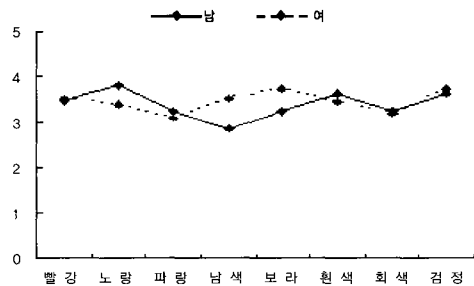
<표3>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 흰색, 검정색 셔츠를 더욱 개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개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여성성은 노랑과 흰색이 높았고 남색, 검정, 파랑이 낮았다. 즉 고명도의 밝은 색 셔츠는 여성성이 높고, 저채도의 어두운 색과 푸른색 계통은 남성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흰색 셔츠가 여성성이 높게 평가된 것은 선행연구²⁵⁾에서 흰색 재킷이 여성성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며, 남색이 여성성이 낮게 평가된 결과도 선행연구²⁶⁾와 일치하였다. 여성성 평가는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그 형태는 <표4> <그림3>과 같다.

한국인은 파랑, 남색, 보라, 회색, 검정에 대한 여성성 평가가 매우 낮아 전통적인 인식에 따라 푸른색 계통과 저채도의 색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전

통적인 사회이므로 색의 평가에서도 더욱 전통적인 가치에 따르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매력성은 검정과 노랑이 높았고 남색, 파랑, 회색이 가장 낮았다. 매력성 평가는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5> <그림4>와 같다.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과 보라를 매력성이 높게 평가하였고 남자는 노랑을 매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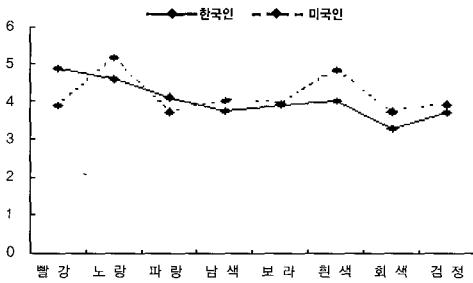
<그림4> 매력성 평가의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5> 매력성 평가의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성별\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남자	3.48	3.81	3.26	2.87	3.26	3.63	3.25	3.64
여자	3.52	3.42	3.12	3.53	3.74	3.46	3.21	3.73

<표6> 사교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문화 \ 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한국인	4.89	4.59	4.11	3.76	3.91	4.04	3.27	3.70
미국인	3.91	5.15	3.74	4.03	3.96	4.84	3.72	3.92



(그림5) 사교성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이 높게 평가하였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침착한 색을 매력적으로 지각하였으나, 남자는 여성들이 명시성이 높은 개성적인 색을 착용하였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성은 노랑이 가장 높았고 회색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에 검정도 사교성이 낮은 편이었다. 회색과 검정이 사교성이 낮게 평가된 것은 한복과 재킷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색이 자신없고 무능하며 능력이 낮게 지각되었던 결과(27)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사교성은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그 형태는 <표6> <그림5>와 같다.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빨강 셔츠를 사교성이 높다고 지각하였고 미국인은 흰색을 사교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즉 미국인은 명도가 높은 밝은 색에 대해 사교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인은 빨강과 같이 눈에 띄는 원색을 사교적인 색으로 지각하였다. 이것은 개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빨강을 개성이 높게 평가한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인에게는 빨강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색으로 인식되나, 한국인에게는 빨강 셔츠가 눈에 띄는 색으로 지각되어 독특하며 사교적인 이미지로 평가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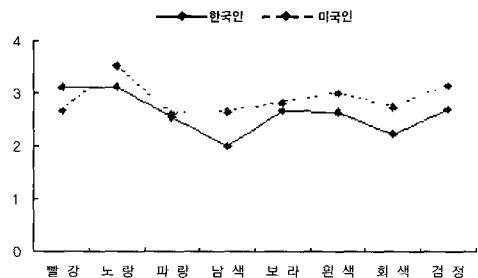
의미한다.

화려한 이미지는 노랑이 가장 높았고 남색, 회색이 매우 낮았다. 이것은 수트의 연구에서 빨강이 노랑보다 화려한 인상을 주었다는 결과(28)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화려함은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그 형태는 <표7> <그림6>과 같다.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빨강셔츠를 더 화려하다고 평가하였고 남색, 회색, 검정은 화려하지 않게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노랑 셔츠를 더 화려하다고 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랑을 가장 화려한 색으로 지각하였다.

선호도에 대한 주효과를 보면 문화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의복색에 따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흰색과 검정 셔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남색, 파랑, 보라, 회색, 빨강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선호도는 문화, 성별,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각 색의 이미지 특성을 종합해 보면 빨강과 파랑 색 셔츠는 품위가 낮았고, 노랑색은 사교적, 여성적,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았다. 남색은 여성성이 낮으면서 단정성이 높았고, 회색은 사교성과 개성



(그림6) 화려함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7> 화려함 평가의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문화 \ 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한국인	3.12	3.11	2.53	2.00	2.66	2.64	2.23	2.68
미국인	2.66	3.50	2.59	2.64	2.80	3.00	2.73	3.13

〈표8〉 한국인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품위 F	단정성 F	개성 F	여성성 F	매력성 F	사교성 F	화려함 F
체형(A)	1	4.92*	6.71*	.17	3.19*	1.33	4.10*	.01
의복색(B)	2	3.82**	4.65**	18.81**	23.32**	2.19*	8.52**	5.00**
A×B	2	1.01	.53	.48	.81	.58	.38	.38
체형	N	M	M	M	M	M	M	M
보통	191	3.29	4.80	3.17	3.60	3.08	4.16	2.62
비만	197	3.06	4.50	3.12	3.41	2.93	3.92	2.63

* p<.05 ** p<.01

〈표9〉 미국인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품위 F	단정성 F	개성 F	여성성 F	매력성 F	사교성 F	화려함 F
체형(A)	1	7.57**	2.16	2.98	8.22*	10.63**	.05	1.84
의복색(B)	2	3.70	1.14	7.94	5.82	.91	8.66	3.94
A×B	2	.41	.71	1.56	1.18	1.14	2.73*	1.43
체형	N	M	M	M	M	M	M	M
보통	192	3.85	4.95	3.59	4.31	4.05	4.17	2.95
비만	171	3.60	4.78	3.41	4.07	3.70	4.15	2.81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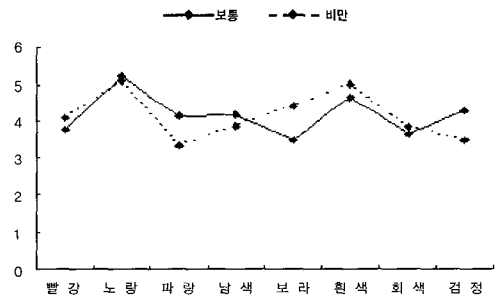
이 낮게 지각되었다. 흰색과 검정은 단정성, 품위,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2. 지각대상자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지각대상자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미국인을 분리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에서 한국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체형에 따라 품위, 단정성, 여성성, 사교성 평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비만체형은 보통체형보다 품위, 단정성, 여성성,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표9>에서 미국인에 대한 결과를 볼 때 미국인은 품위, 여성성, 매력성 평가에 대해 체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비만체형은 보통체형보다 품위, 여성성,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비만체형을 보통체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한국인은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나 미국인은 사교성 평가에 대하여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10> <그림7>과 같다.

비만체형이 보라색을 착용했을 때는 보통체형보다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파랑과 검정을 착용했을 때는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과 검정색은 후퇴의 느낌을 주는 색이므



〈그림7〉 미국인의 사교성 평가에 대한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10〉 미국인의 사교성 평가에 대한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체형 \ 색	빨강	노랑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보통	3.77	5.22	4.13	4.16	3.48	4.68	3.65	4.31
비만	4.08	5.09	3.35	3.88	4.43	5.02	3.82	3.50

<표11>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미국 남자		미국 여자	
	beta	t	beta	t	beta	t	beta	t
품위	-	-	.33	4.51	.38	5.84**	.36	5.42**
단정성	.16	2.85**	-	-	.19	3.02**	-	-
개성	-.21	-3.04**	-	-	-	-	-	-
매력성	.55	7.22**	.38	4.97**	-	-	.26	3.90**
사교성	.18	3.14**	.12	2.31*	.31	5.07**	.29	5.19**
화려함	.20	2.64**	-	-	-	-	-	-
R ²	R ² =.537, F=43.41**		R ² =.493, F=61.85**		R ² =.409, F=40.91**		R ² =.534, F=35.52**	

* p<.05 ** p<.01

로 체형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비만형이 후퇴색을 착용하였을 때는 자기 체형을 의식하는 소극적인 인물로 지각되어 사교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체형이 매우 큰 사람은 명도가 낮은 색채나 검정색 의복을 택하면 체형상의 단점을 강조하여 역효과를 주게 되며, 배경과 체형과의 큰 명도차에 의하여 체형의 윤곽선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정색을 착용한 비만체형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색 고유의 속성 이외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의 배경색과 의복색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복색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의복색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7개 이미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1>은 한국인 남자와 미국인 남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11>에서 한국인 남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개성(-), 화려함, 사교성, 단정성이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3.7%였다. 즉 한국인 남자는 매력적이고 비개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사교적이며, 단정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여기서 화려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개성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한국 남자는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면서도 너무 개성적인 색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여자에게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품위와 사교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9.3%였다. 미국인 남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교성, 단정성이 영향을 주었다.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0.9%였다. 즉 미국인 남자는 품위 있고, 사교적이며, 단정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미국인 여자에게도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교성과 매력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3.4%였다.

여기서 단정한 이미지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남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여자에게는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남자는 특히 여성의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성은 네 집단 모두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써 사교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자의 문화, 성별,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의 차이를 규명하고, 지각대상자의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피험자는 한국인 남녀 대학생 388명과 미국인의 백인 남녀 대학생 363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자의 문화(한국인과 미국인), 성별, 의복색

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지각 대상자의 품위, 단정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화려함, 선호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 단정성, 개성, 사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는 남자보다 지각 대상자의 단정성과 사교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개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의복색에 따라 모든 이미지 지각 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검정과 흰색 셔츠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파랑, 빨강은 품위가 낮게 지각되었으며 노랑은 사교적으로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이미지 평가는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있었다. 개성 평가는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빨강과 파랑 셔츠를 더 개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남색, 흰색, 회색, 검정색은 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서 흰색은 개성적인 색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성 평가는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 흰색, 검정색 셔츠를 개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개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여성성 평가는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인은 파랑, 남색, 보라, 회색, 검정에 대한 여성성 평가가 매우 낮았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전통적인 사회이므로 색의 평가에서도 더욱 전통적인 태도에 따르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매력성 평가는 성별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과 보라를 매력성이 높게 평가하였고 남자는 노랑을 매력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즉 남자는 여성들이 명시성이 높은 색을 착용하였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성과 화려함은 문화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빨강

셔츠를 사교성이 높고 화려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미국인에게는 빨강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색으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인에게는 빨강 셔츠가 눈에 띄는 색으로 지각되어 화려하며 사교적인 이미지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선호도에 대한 주효과를 보면 문화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의복색에 따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흰색과 검정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남색, 파랑, 보라, 회색, 빨강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선호도는 문화, 성별,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한국인은 체형에 따라 품위, 단정성, 여성성, 사교성 평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비만체형은 보통체형보다 품위, 단정성, 여성성,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미국인에게는 비만체형이 보통체형보다 품위, 여성성,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비만체형을 보통체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인은 사교성 평가에 대하여 체형과 의복색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비만체형이 보라색을 착용했을 때는 보통체형보다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파랑과 검정을 착용했을 때는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파란색과 검정색은 후퇴 및 축소의 느낌을 주는 색이므로 비만형이 후퇴색을 착용하였을 때는 소극적인 인물로 지각되어 사교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인 남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개성(-), 화려함, 사교성, 단정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3.7%였다. 한국인 여자에게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품위와 사교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R^2=49.3\%$). 미국인 남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교성, 단정성이 영향을 주었다($R^2=40.9\%$). 미국인 여자에게도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뒤이어 사교성과 매력성이 영향을 주었다($R^2=53.4\%$). 여기서 단정한 이미지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남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여자에게는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남자는 특히 여성의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빨강

과 파랑 셔츠를 더 개성이 높게 평가하였고 푸른색 계통과 저채도의 색을 남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 흰색, 회색 셔츠를 더 개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지각자의 문화와 성별, 지각대상자의 의복색과 체형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각 자극물을 평가한 피험자의 수가 적다는 것과 둘째, 자극물은 실제 사람이 착용하였을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조사대상을 한국과 미국의 일부 지역 피험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상황이나 배경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또한 지각대상자에 있어서도 연령 변인을 포함한 문화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Lurie, A. (1991). The language of cloths. *Human Ecology Forum* 19(3), pp.32-34.
- 2) 최영훈 편 (1987).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pp.37-41.
- 3) Damhorst, M. L. (1999). Dress as nonverbal communication. in Damhorst, M. L., Miller, K. A., & Michelman, S. O. (1999). *The meanings of dress*. New York: Fairchild Pub., pp.78-89.
- 4) 김광경, 강혜원 (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 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I): Suit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pp.1-20;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pp.501-514; DeLong, M., Salusso-Deonier, C. & Lar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pp.327-336.
- 5)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7, pp.119-132.
- 6)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10-16.
- 7) 이명희 (2003).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7), pp.851-861.
- 8) 박도양 (1983). *실용색채학*. 서울: 이우출판사, pp.72-73.
- 9)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10)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3.
- 11) 추선행, 김영인. (1997). 녹색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 pp.33-46.
- 12) 박금옥 (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14)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 15) 김광경, 강혜원 (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 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I): Suit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pp.1-20.
- 16)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503-514.
- 17) 이선재 (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 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pp.173-187.

- 18) Lee, M. & Burns, L. D. (1993).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urchase criteria of Korean and United States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8-12.
- 19) 이정옥 (2000). 원산지와 의류 상표자사가치가 소비자의 의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pp.663-674.
- 20)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367-379.
- 21) DeLong, M., Koh, A., Nelson, N. & Ingvoldstad, A. (1998). Jeans.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mean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6(3), pp.116-125.
- 22) 박수경 (2003).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의류제품 만족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청바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6-87.
- 23) 박우미 (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pp.25-36.
- 24) DeLong, M. & Larntz, K. (1980).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4), pp.281-293; Gibbins, K. & Schneider, A. (1980). Meaning of Garment: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1), pp.287-291;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Solomon, M. R.,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ss: D. C. Health and Co., pp.321-334;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1-12; 이명희(1993). Op. cit., pp.367-379; 차미승 (1992). Op. cit., pp.52-53; 이명희, 강승희 (1998). Op. cit., pp.1111-1121;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pp.78-89.
- 25) 이명희, 강승희 (1998). Op. cit., pp.1111-1121.
- 26) 김광경, 강혜원 (1992). Op. cit., pp.1-20;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503-514.
- 27) 이혜숙, 김재숙 (1998). Op. cit., pp.597-606; 이명희, 강승희 (1998). Op. cit., pp.1111-1121.
- 28) 이주현, 조궁호 (1995). Op. cit., pp.747-764.
- 29) 이은영 (1998). *복식의장학 제1차 개정판*. 서울: 교문사, p.122.